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3월 28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5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7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실시협약 체결
- ◆ 인천항, 신차 수출을 위한 신규 야적 및 작업장 공급 예정
-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 중국, '24년 2월 누적 수출입 교역 증가
- ◆ 제미나이 얼라이언스, 피더항 네트워크 대규모 전환 계획 발표
- ◆ 호주 DP World 터미널 파업 장기화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컨테이너 운송시장, 과잉 생산에 따른 어려움 예상
- ◆ '24년 건설경기 부진 전망
- ◆ 중국 전기차,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생산기지 건설 추진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실시협약 체결¹⁾


-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3월 15일,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이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12월에 선정된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주)와 (주)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임
-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주)는 125,720㎡ 규모로 총투자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74,568㎡에 약 66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부산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신항 항만배후단지 공급 이래 단일면적으로 가장 넓은 규모로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많은 물동량과 고용창출이 기대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1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816>(2024.03.18. 검색)


2 BPA, LA·LB지역에 신규 물류센터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 의향서 체결²⁾

-  BPA는 LA·LB 지역에 신규 물류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미주지역 전문 국제물류주선업체인 (주)주성씨앤에어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함

 - 양측은 LA·LB항만 배후지역 신규 물류 플랫폼 확보를 위한 시장조사와 국내 중소 수출 기업 대상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업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  미국은 우리나라 2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부산항과 두 번째로 교역이 많은 시장으로 국내외 수출 및 물류 기업진출이 활발한 곳임

 - 특히, LA·LB항은 전체 물동량의 약 33.7%가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로, 특히 LB항은 항만에서 미국 전역으로 철도와 트럭을 통해 화물운송이 가능함에 따라 대미 수출에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대아시아 무역 관문항인 LA·LB항에 항만 적체가 발생하면서 국내 수출기업 및 미국 현지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물류창고 부족 및 임차료 증가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BPA는 배후 물류센터 확보에 따른 미국 내륙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등에 보다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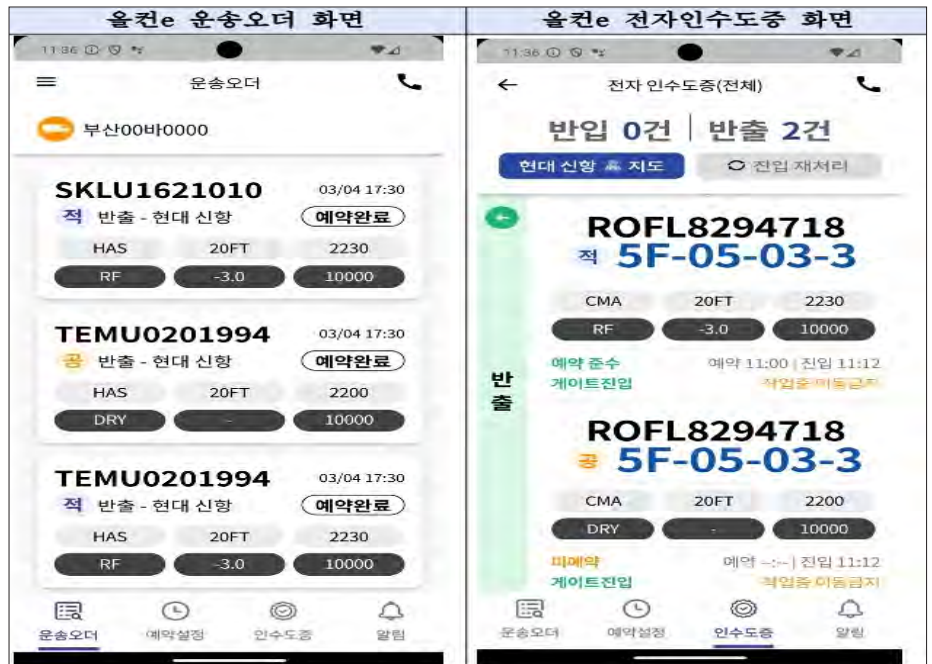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1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811>(2024.03.18. 검색)

3 부산항 전 부두에 전자인수도증 전면 도입³⁾

- BPA는 올해 7월부터 부산항 전 부두에 전자인수도증을 도입할 예정이며, 홍보부스 등의 설치를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임**

 - 전자인수도증은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입구에서 기존 종이 인수도증을 모바일앱(올컨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것으로, 운송기사는 게이트 입구에서 정차할 필요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함
 - 전면 도입에 앞서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북항 부산항터미널(BPT), 신항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HPNT),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송기사들에게 전자인수도증 의무적용 계획을 안내하고 앱 설치 등을 도와줄 예정임
- 한편, BPA는 부산항의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은 필수 과제로, 전자인수도증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올컨e 전자인수도증 화면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746>(2024.03.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07.),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1746>(2024.03.18.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만공사(IPA), 신차 수출을 위한 신규 야적 및 작업장 공급⁴⁾

- IPA는 지난 3월 18일, 신항배후단지 내 약 2만 8천 m² 용지를 신차 수출을 위한 야적 및 작업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신차는 주로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통해 수출되는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출 증가로 그간 자동차 전용 운반선 선복 확보에 난항을 겪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항에서 컨테이너선을 활용한 자동차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 '22년에는 신차 약 20만 대가 인천항에서 자동차 전용 운반선을 통해 수출됐으나, '23년부터는 약 25만 대의 자동차 수출 물동량 중 약 1만 7천여 대가 컨테이너를 통해 반출됨
 - IPA는 원활한 신차 수출을 위해 신항배후단지 일부를 야적 및 작업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신규 제공되는 배후단지를 '24년도에 이용할 신차는 약 7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인천항, '24년도 크루즈 모항 운영 총 5항차 예정⁵⁾

- '24년도에 인천항을 모항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크루즈선은 3월 8일부터 운영한 리비에라(Riviera)를 시작으로 총 5항차가 계획되어 있음
 - 오세아니아(Oceania) 선사의 리비에라(Riviera)호는 6만 6천 톤급으로 여객 1,100명, 승무원 800명 등을 싣고 지난 3월 8일~9일에 걸쳐 제주와 일본 등을 기항함
 - IPA는 이번 열흘간 크루즈 선내에서 소비되는 와인 78톤, 식자재 52톤, 신선식품 26톤 등 총 156톤, 약 20억 원 상당의 선용품을 인천항에서 공급함에 따라, 금회 글로벌 크루즈 모항 운영이 인천항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1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90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3.1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90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3.18. 검색))

5) 인천항만공사(2024.03.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82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3.18.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82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4.03.18. 검색))

3) 여수·광양항

1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탄소중립항만 구축 지속 노력⁶⁾

- YGPA는 여수·광양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힘**

 - YGPA는 지난 '21년 제시한 「2040 친환경·스마트항만 구축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해 왔음
 - '22~'23년에 걸쳐 지자체, YGPA, 민간기업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여수·광양항을 아우르는 수소배관망 기본구상안을 도출한 바 있음
 - '23년 10월에는 광양항 원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친환경연료 Ship-to-Ship 벙커링 실증에 성공하였으며, '24년 1월에는 친환경 선박연료별 공급-수요자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관련 제도 지원 등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함
 - 아울러 '22년 5월부터 '24년 5월까지 진행되는 해양수산부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진행된 두 차례의 수요조사에 여수·광양항의 탄소중립 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제출 및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함
 -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항만구역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어오고 있음
 - YGPA는 세계적 흐름과 정부 계획에 기반한 여수광양항의 탄소중립항만 계획을 수립하여 여수·광양항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4년에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08.),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64>(2024.03.1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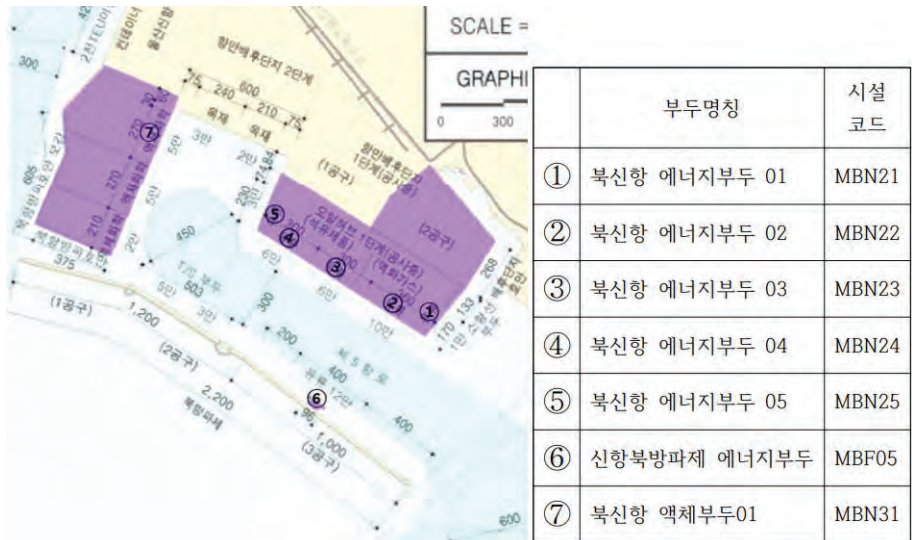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UPA), 북신항 7개 부두 명칭 확정⁷⁾

UPA는 올해 하반기 에너지허브 1단계 상업 운영 시작과 액체부두 1개 선석의 3월 준공을 앞두고 북신항 일대 7개 부두의 명칭을 확정함

- 에너지허브 1단계의 5개 선석은 ‘북신항 에너지부두 01~05’로 확정했으며, 그 외에도 ‘북신항 액체부두01’과 ‘신항북방파제 에너지부두’도 북신항 명칭을 넣어 확정함
- 향후 남신항 개발을 대비하여 부두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부두명에 권역명인 ‘북신항’을 부여했으며, 시설코드는 각각 MBN21~25, MBN31, MBF05로 각각 부여될 예정임
- 명칭이 확정된 부두 중 ‘신항북방파제 에너지부두’를 제외한 6개 부두는 추후장 44개에 달하는 총면적 315,450㎡의 대규모 기반시설이며, '13년부터 약 2,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UPA가 조성함

확정된 울산항 북신항 7개 부두 명칭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2.20.),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8417(2024.03.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2.20.),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8417(2024.03.16. 검색)

2 UPA, 북신항 액체부두 준공⁸⁾

UPA는 3월 15일,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에 조성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준공식을 개최함

- UPA는 '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벽 길이 300m, 가호안 440m, 배후의 항만 부지를 포함한 총 12,600㎡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매립 예정인 배후부지를 준설도 투기장으로 조성함
- 5만 톤급의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북신항 액체부두가 완공되면 액체화물 취급 능력이 연간 약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임
- UPA는 올해 상반기 중 울산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두의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할 계획임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전경



자료: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15.),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8521(2024.03.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3.15.),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8521(2024.03.16.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직할세관, 지난해 해상특송화물 4,009만 건 처리⁹⁾

- 평택직할세관은 '23년 전국 해상특송화물 반입량의 67%에 해당하는 4,009만 건의 해상 특송화물을 처리했으며 이 같은 해상 물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평택직할세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특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평택세관의 해상특송화물 반입 건수는 매년 평균 1천만 건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해상 화물 반입 건수는 '19년 152만 건, '20년 1,335만 건, '21년 2,333만 건, '22년 3,204만 건, '23년 4,009만 건을 기록함
 - 주요 통관 품목은 소형 전자제품, 의류, 가정용품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구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품목은 '충전기, 휴대용 전등 등' 19%, '마우스, 전자기기부품 등' 7.3%, '완구 운동용품, 게임기 등' 6.4%, '의류' 11.4%, '식탁 주방용품' 9%, '가방, 마사지기, 수공구 등' 46.9%로 파악됨
- 평택세관은 '19년 5월 해상특송 물류센터를 개장한 이래 총 3차례에 걸쳐 X-ray를 증설하고 24시간 순환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등 통관 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1 포항 송도부두 결함으로 울릉도 정기화물선 운항 차질 지속¹⁰⁾

- 지난해 7월 포항 송도부두에 발생한 결함으로 포항~울릉도 정기화물선 운송에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청)이 대체 선석 확보 등 해결책을 모색 중임**

 - 미래15호는 '18년부터 포항~울릉도 간 화물과 생필품을 운송하는 5,300톤급 화물선으로, 기상 악화에도 운항할 수 있어 화물의 원활한 운송에 크게 도움이 되어 옴
 - 지난해 7월 미래15호가 접안하던 송도부두 1번 선석에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이후 예인선을 활용해야 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발생함
 - 포항청은 울릉도 주민 생필품 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체 선석 확보 등 해결안 도출에 매진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9) 경인일보(2024.02.26.),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226025384250>(2024.03.14. 검색)

10) 경북매일(2024.03.17.),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468>(2024.03.18.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항 화물운송차량 비산먼지 단속 강화¹¹⁾

- 동해시는 석회석, 시멘트 및 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동해항의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적재함 관리, 적재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현재 동해항의 물동량 중 석회석·시멘트·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화물 운송 시 동해항 주변 도로 등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파손과 주변 환경 오염 등 재비산먼지에 의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음
 - 동해시는 화물운송차량 적재함 집중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를 위해 지난달 분진화물 취급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단속계획 안내물을 발송, 3월 중 하역사·운송사 자체 점검을 하고, 내달 환경책임관회의를 소집해 운송차량 적재기준 준수를 강조한다는 계획임
 - 특히 계도기간인 4월부터 6월까지의 밀폐용 덮개설치 및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개 설치), 항만 내 30km 규정속도 준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시 처분을 유예하지만, 7월부터는 본격 단속을 통해 위반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임
 - 동해항에 벌크화물 일반하역, 옥외야적장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하역 작업 전과 작업 중 살수를 의무화하고,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하역 즉시 상옥시설로 이송조치, 동절기 살수가 어려울 경우 표면경화제를 살포하는 등 집중관리를 예고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시와 합동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 구역 지정 및 주기적인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강원도민일보(2024.03.12.),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3226>(2024.03.19. 검색)

8) 목포항

1 신규 크루즈 카페리선, 목포~제주 항로 신규 취항¹²⁾

-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제주 항로에 대형 크루즈 카페리 선박인 ‘퀸제누비아 2호’를 신규 투입함

 - ‘퀸제누비아 2호’는 국내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되었으며,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14.5m의 2만 6천 톤급 선박으로 여객 1,010명의 탑승과 차량 480대의 선적이 가능함
 - 프라이빗 객실, 미팅·세미나·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 오션뷰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으며, 펫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설 등도 마련되어 있음
-  한편, ‘퀸제누비아 2호’는 목포항 내항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확충공사로 인해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에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에서 선박공개 행사 등을 진행함¹³⁾


 -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공사는 오는 3월부터 국비 495억 원을 투입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 기간 동안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과 함께 운영될 예정임
 - 오전 1시에는 ‘퀸제누비아호’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45분에는 임시여객터미널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이용할 수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대산항

1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한우리호’ 취항¹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7일, 서산 대산항 관리부두에서 하이브리드 항만순찰선 ‘한우리호’ 취항식을 개최함

 - 한우리호는 길이 22.17m, 너비 5.2m, 높이 2.5m의 49톤급 알루미늄 선박으로 최대 속력은 32.3노트, 최대 승선 인원은 14명이며, 대산항에서 해상 안전관리, 항행 장애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선박 건조에는 4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워터제트 추진방식으로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건조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머니S(2024.02.28.),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2808541068830>(2024.03.18. 검색)

13) 연합뉴스(2024.02.26.),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068100054?input=1195m>(2024.03.18. 검색)

14) 대전일보(2024.03.10.),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187>(2024.03.13. 검색)

2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¹⁵⁾

- 해양수산부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29일 사업공고를 냈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해양수산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25년 착공하여 ’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산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 전경



자료: 물류신문(2024.03.04.),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30>(2024.03.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5) 물류신문(2024.03.04.),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30>(2024.03.16. 검색)

10) 군산항

1 전북자치도,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배후항만 조성 추진¹⁶⁾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배후항만 조성 추진

-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이 투자되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임
- '24년 상반기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상풍력(400MW), 한국전력공사(800MW) 외에 1,200M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계획임
- 이에 전북자치도는 민간사가 운영 중인 군산항 6부두(63, 64선석)와 7부두(79, 79-1선석)를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적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전북자치도는 터빈, 타워, 하부구조물 등 해상풍력 주요 자재들의 조립, 보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5년까지 군산항 7부두(75선석)에 해상풍력 지원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한 배후항만 조성도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03.13.),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110100000000&boardId=BBS_0000090&dataSid=545547(2024.03.18. 검색)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6)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03.13.),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110100000000&boardId=BBS_0000090&dataSid=545547(2024.03.18. 검색)

11) 마산항

① 친환경 항만정화선 ‘푸르미2호’ 취항식 개최¹⁷⁾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월 6일 오후 2시 마산항 제2부두에서 창원지역 유관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정화선 ‘푸르미2호’ 취항식을 개최함
 - 푸르미2호는 총사업비 66억 원의 104톤급 친환경 항만정화선으로 친환경선박법시행과 해양수산부의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 ship-K) 보급시행계획’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선박 추진방식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탑재함
 - 푸르미2호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추진모터로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서 마산항의 깨끗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7)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4.03.06.),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02999>(2024.03.1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24년 2월 누적 수출입 교역 증가¹⁸⁾

- 중국**의 '24년 2월 누적 수출입 증가세가 당초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음

 - 중국 세관은 춘절의 영향에 따른 통계자료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합산하여 발표하였으며, '24년 2월 누적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7.1% 증가, 수입은 3.5% 증가함
 - 당초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른 전망치는 수출이 1.9%, 수입이 1.5%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 발표됨
-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대부분 전자 부문에서 나타났으며, 지난해 2월 누적 실적이 워낙 낮아 그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입의 경우 정유사들이 설 연휴 동안 연료 판매를 충족하기 위해 구매를 늘린 것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지표와 달리 중국의 제조업활동을 대표하는 구매관리자지수는 2월에도 감소하여 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무역지표와 제조업지표 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수출업체들이 신규 주문 건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 인하 정책을 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가격 인하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강세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밝힘
- 한편**,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수출의 지속적인 반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미한 편임

 - 중국은 '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하고 이후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부동산 위기 등에 따른 막대한 부채 부담과 싸우는 등 중국의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음
 - 실제로 무역지표와 달리 중국 블루칩 CSI300 주가지수는 0.32% 하락, 홍콩 항셱지수는 0.47%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18) REUTERS(2024.03.07.),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an-feb-trade-beats-forecasts-signals-global-trade-rebound-2024-03-07/\(2024.03.15. 검색\)](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an-feb-trade-beats-forecasts-signals-global-trade-rebound-2024-03-07/(2024.03.15. 검색))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Change in exports and imports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jan-feb-trade-beats-forecasts-signals-global-trade-rebound-2024-03-07/> (2024.03.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신(新)국제육해무역회랑에 따른 중국 서부와 아세안 간 무역 증가¹⁹⁾

-  '24년에 신국제육해무역회랑을 따라 운행하는 철도-해상 복합 열차가 2,000회를 넘기며, 이미 예정일보다 14일 앞당겨 '24년 1분기 목표를 달성함

 - 신국제육해무역회랑은 지난 '17년 중국 서부의 성급 지역과 아세안 회원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무역·물류 통로로 해당 통로를 통한 물동량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육해회랑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중국 전역 18개 성급 지역에서 149개 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대비 5개 역이 추가된 수치임

-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해당 회원국과의 회랑을 통한 중국 간 무역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육해회랑과 연결된 광시의 베이부완항에서는 20,539TEU가 처리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6%가 증가하였으며, RCEP 회원국은 회랑을 통해 11,023TEU를 처리하면서 전년 대비 약 35%가 증가함

-  한편, 분석가들은 이러한 회랑을 통한 물동량 증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견고한 대외무역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함

 - 중국은 서방으로부터 스스로 전략적 독립을 추구함과 동시에 남미 및 역내 아세안 지역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무역질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9) Global Times(2024.03.17.),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3/1308995.shtml>(2024.03.18. 검색)

2) 아시아



1 PSA 싱가포르, 주룽섬 기반 산업에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제공을 위해 터미널(JIT) 확장 발표²⁰⁾

- 싱가포르항 주룽섬은 싱가포르 에너지와 화학산업의 중심으로 석유정제품, 올레핀 등 100여 개 이상의 석유화학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 있음**

 - 현재 주룽섬 북서쪽에 위치한 JIT는 투아스(Tuas),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및 브라니(Brani) 터미널과 연결되는 바지선 서비스를 일간 2회 제공함
 - 바지선 운송은 컨테이너에 석유화학 완제품 및 원자재를 싣고 도로를 통해 주룽섬까지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 대비 노동 집약도가 낮고 도로 혼잡을 유발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이 약 30% 적음
 - '23년 JIT의 바지선 운송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만 9천 TEU를 기록하는 등 최근 JIT의 바지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PSA는 주룽섬의 바지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간 처리 용량을 30만 TEU로 JIT를 확장할 계획임**

 - '싱가포르항 그린 플랜 2030'에 따라 '25년에 완공될 JIT의 확장은 주룽섬의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일본 8개 항만, 그린 어워드(Green Award) 프로그램 신규 참여²¹⁾

- 그린 어워드 재단(Green Award Foundation)은 오사카 항만국이 관리하는 8개 항만이 그린 어워드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하여 인증 선박에 할인된 항만 요금을 제공한다고 밝힘**

 - 그린 어워드 재단은 '94년 창립된 글로벌 비영리 품질보증 단체로서, 안전, 품질, 환경 분야에서 업계 표준 이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해운 관련 시설 및 선사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음²²⁾
 - 신규로 그린 어워드에 참여하는 8개 항만 중에는 오사카만에 위치한 주요 산업항만인 사카이센보쿠항과 한난항이 포함되어 있음

20) Yang Ming (2024.03.11.),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sa-singapore-expands-jurong-island-terminal-to-enhance-sustainable-supply-chain-offerings-for-the-jurong-island-ecosystem/\(2024.03.18. 검색\)](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psa-singapore-expands-jurong-island-terminal-to-enhance-sustainable-supply-chain-offerings-for-the-jurong-island-ecosystem/(2024.03.18. 검색))

21) Marine Link(2024.03.03.), [https://www.marinelink.com/news/eight-japanese-ports-join-green-award-511957\(2024.03.18. 검색\)](https://www.marinelink.com/news/eight-japanese-ports-join-green-award-511957(2024.03.18. 검색))

22) KR(2017.10.12.), [http://homedev.krs.co.kr/webzine/a/sub/sub.aspx?w_code=0102000000&no=1461&webzine_no=94\(2024.03.18. 검색\)](http://homedev.krs.co.kr/webzine/a/sub/sub.aspx?w_code=0102000000&no=1461&webzine_no=94(2024.03.18. 검색))

- 오사카항과 고베항은 각각 '20년과 '21년부터 그린 어워드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15%와 10%의 할인된 항만요금을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일본의 8개 항만이 그린 어워드 프로그램에 신규로 참여함에 따라 전 세계 총 47개 항만이 해상 운송에 있어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독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 인도, 핵 화물 운송 의심 파키스탄행 선박 나포²³⁾

인도의 보안기관은 뭄바이 나바세바항에서 핵 화물 운송이 의심되는 중국발 파키스탄행 선박을 나포함

- 나포된 중국발 파키스탄행 선박은 CMA CGM 아틸라호(CMA CGM Attila)로, 이스라마바드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사용 위탁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 해당 위탁품에는 이탈리아 회사가 세관원과 국방과학연구개발기구(DRDO)의 검사를 받은 컴퓨터 수치 제어 장치(CNC)가 포함되어 있었음
- DRDO는 CNC 기계가 파키스탄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함
- 인도는 파키스탄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수출입이 제한된 품목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3) The Economic Times(2024.03.0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halts-pakistan-bound-ship-from-china-suspected-of-carrying-nuclear-cargo/articleshow/108175104.cms?from=mdr\(2024.03.19. 검색\)](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defence/india-halts-pakistan-bound-ship-from-china-suspected-of-carrying-nuclear-cargo/articleshow/108175104.cms?from=mdr(2024.03.19. 검색))

4 프랑스, 레바논 베이루트항 재건 계획 발표²⁴⁾

- '20년 8월 베이루트항에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 반 만에, 프랑스가 항만 재건 및 재편성 계획을 발표함
 - 3월 13일 베이루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랑스 정부는 레바논 항만 재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발표함
 - 이 계획은 손상된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더 나은 교통 흐름을 위해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며, 태양광 발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폭발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곡물 사일로의 재건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폭발로 파괴된 주 기반 시설의 복원 비용은 약 6천~8천만 달러로 추산됨
 - 한편, '22년에 CMA 터미널은 베이루트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3,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4) The Maritime Executive(2024.03.15.),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france-unveils-latest-plan-to-rebuild-the-port-of-beirut>(2024.03.18. 검색)

3) 미주



1 NY/NJ 항만 당국과 스카이포트 드론서비스(Skyports), 파트너십을 통한 ‘미들마일 드론 물류(middle-mile drone logistics)’에 집중²⁵⁾

- 📍 Skyports와 뉴욕/뉴저지 항만청(PANYNJ)은 해양, 항공 등 운송수단 전반에 무인 항공 시스템(UAS)을 보급·성장시키려는 당국의 계획을 위해 **다년간 협력할 예정임**
 - NY/NJ항을 관리하는 PANYNJ는 뉴욕과 뉴저지의 항공, 육상, 철도 및 해상 운송 네트워크의 인프라 대부분과 자유의 여신상 주변 25마일 반경에 걸쳐 있는 항만구역 주요 터널과 교량 건설목을 관리함
 - PANYNJ는 허드슨을 횡단하는 화물 운송의 상당 부분을 UAS와 같은 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Skyports와 PANYNJ는 ‘미들마일 드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항만지구 전체의 규제, 기술, 운영 및 상업적 경로를 식별하는 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 ‘미들마일’은 최종 고객에게 화물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 유통 센터나 창고를 소매점이나 지역 센터에 연결하는 공급망의 부분을 의미함
 - 이번 협력을 통해 전기로 작동하는 드론이 항만을 이용하는 트럭 교통량 감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미국 항만, 항만 및 연관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 진행

- 📍 사우스 캐롤라이나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용량 확장을 진행함²⁶⁾
 - 사우스 캐롤라이나 항만 당국(SC Ports)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제를 위한 철도 용량에 대한 투자를 발표함
 - 해군기지 복합시설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노스 찰스턴(North Charleston)에는 '25년 7월에 6대의 갠트리 크레인이 도입되어 CSX와 노퍽 서던(Norfolk Southern) 열차의 컨테이너 상하차를 담당할 전망임
 - 업스테이트 사우스 캐롤라이나(Upstate South Carolina)에서는 인랜드 포트 그리어(Inland Port Greer)의 확장으로 8,000피트 이상의 추가 철도 선로가 확보되었으며, 컨테이너 야드 확장도 거의 완료되어 화물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임

25) Port Technology(2024.02.2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ynj-skyports-explore-middle-mile-drone-logistics/>(2024.03.16. 검색)

26) Port Technology(2024.03.0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c-ports-expands-rail-capacity-to-boost-economy/>(2024.03.16. 검색)

- 버지니아항, 초대형 컨테이너선(ULCV)의 양방향 통항을 위해 항로 확장을 진행함²⁷⁾**

 - 항로 확장은 효율성 향상, 화물 증대, 화물 이동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14억 달러 규모의 ‘항만 전략적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부두에 접안하는 대형선박의 유희시간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버지니아항은 항로 확장 외에도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준설사업이 완료되는 ’25년 가을이면 미국 동안에서 가장 깊고 넓은 항로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 샌디에이고항, 배출가스 제로 장비를 확대함²⁸⁾**

 - SSA Marine이 ‘The Carrillo’라는 이름의 55,000파운드 용량의 Wiggins Yard eBull 배터리 전기 지게차를 도입함
 - 해당 지게차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가장 큰 배출가스 제로 지게차로 최대 25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이 장비의 구매는 캘리포니아주의 CORE(Clean Off-Road Equipment)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를 지원받음
 - 해당 장비는 배출가스 제로 화물처리 장비 6개 중 첫 번째 장비이며, 나머지는 12~18개월 내에 도입 완료할 예정임

-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개선에 600만 달러를 배정함²⁹⁾**

 - 조지아주는 브런즈윅 항만의 개선을 위해 6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배정했으며, 항만의 굴곡 폭 확대, 선회장 확장(콜론즈 아일랜드 정박 전, 선박 방향을 강 아래로 바꾸는 지역), 세인트 시몬스 사운드의 확장 구역 등이 포함됨
 - 전체 사업비는 약 1,745만 달러가 예상되며, 연방정부가 65%인 1,135만 달러를 부담할 전망이다

- 로스앤젤레스(LA)항,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교차로 개선 사업을 준비 중임³⁰⁾**

 - LA항과 캘리포니아 교통부(Caltrans)는 주 47번 국도(SR 47), 빈센트 토마스 다리와 산 페드로의 프론트 스트리트, 허버 대로가 만나는 주요 교차로를 재설계하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교통 프로젝트를 3월 중에 시작할 예정임
 - 해당 사업은 ’26년 완료될 예정이며, 교차로 개선 사업을 통해 구간 내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혼잡이 완화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이 향상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7) Port Technology(2024.03.0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virginia-expands-shipping-channel-for-larger-vessels/>(2024.03.16. 검색)

28) Port Technology(2024.03.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san-diego-expands-zero-emissions-equipment/>(2024.03.16. 검색)

29) Port Technology(2024.03.0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georgia-allocates-6-million-to-brunswick-harbor-improvements/>(2024.03.16. 검색)

30) Port Technology(2024.03.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s-angeles-readies-130-million-transportation-project/>(2024.02.16. 검색)

4) 유럽



1 유럽 주요 항만, 이란의 무기 밀반입 루트로 이용 의심³¹⁾

-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세력과 홍해 후티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무기 선적을 숨기기 위해 유럽 항만 취항 화물선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밝혀짐**

 - 영국 신문사 텔레그래프는 데이지(Daisy), 카산(Kashan), 시바(Shiba), 아레주(Arezoo), 아자르군(Azargoun)이라는 이란 선박 5척은 모두 벨기에 앤트워프항, 스페인 발렌시아항, 이탈리아 라벤나항을 목적지로 지정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각 선박은 이란 반다르 압바스(Bandar Abbas)항에서 출발한 후 가장 먼저 시리아 라타키아항을 방문했다고 지적함
 - 텔레그래프는 이란이 선박을 유럽으로 보내 운항 목적을 위장하고, 적하목록 등 서류를 조작, 컨테이너를 바꿔치기하고 있으며, 라타키아항에서 미사일과 폭탄을 포함한 무기를 하역했을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이란은 홍해 후티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예멘으로 소형 선박을 보내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1월과 2월 이란에서 예멘으로 향하는 다우호를 나포하여 미사일 부품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1) The Maritime Executive(2024.03.15.),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report-iran-uses-eu-ports-and-false-documents-to-smuggle-arms-to-hezbollah> (2024.03.18. 검색)

2 제미나이 얼라이언스, 피더항 네트워크 대규모 전환 계획 발표³²⁾

- ’25년 2월 출범하는 머스크-하팍로이드 동맹인 제미나이는 아시아, 유럽, 지중해, 북미를 연결하는 허브-앤-스포크 네트워크에서, 상하이항, 닝보항, 옌텐항, 싱가포르항, 탄중펠레파스항을 주요 5개 허브항으로 지정함
-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항만 중 하나인 부산항은 제미나이가 발표한 예비 일정에 따라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아시아-유럽, 아시아-지중해, 환태평양 서비스에서 모든 메인라인 기항을 잃게 되며, 아시아-북미 동안 2개 노선과 아시아-중동 1개 노선의 직항 기항이 유지될 예정임
- 홍콩항에서 처리하는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의 물동량은 옌텐항으로 이전될 계획이며, 홍콩항은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중단되고 트럭이나 피더를 통해 옌텐으로 화물을 운송할 예정임
- 그 외 중국 동부의 샤먼항, 북동부 다롄항, 대만 가오슝항, 베트남 호치민/붕타우항, 일본 도쿄항, 고베항 등 여러 항만이 피더항으로 격하될 예정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2) Journal of Commerce(2024.02.23.), https://www.joc.com/article/asia-gateways-scramble-gemini-alliance-plans-big-shift-feeder-port-network_20240223.html (2024.03.18.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DP World 터미널 파업 장기화³³⁾

- ▶ '23년 10월 말 호주 해상 노동조합(Maritime Union of Australia, MUA)의 노동자들이 DP World 터미널을 대상으로 시작한 전국적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드니, 브리즈번, 프리맨틀항의 하역작업이 중단됐으며 멜버른항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임

 - 파업의 장기화 원인은 MUA가 DP World와의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임
 - MUA는 평균 약 13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연봉에 27.5%의 추가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DP World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 이 파업으로 인해 육류 및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이 부패하면서 큰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매주 약 8,400만 호주달러(한화 약 740억), '23년 10월 이후 총 13억 4천만 호주달러(1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 '24년 1월 15일 기준 약 4만 4천 개의 컨테이너가 호주 전역에 정체되어 있으며 파업이 끝나도 장치장 혼잡이 해소되기까지는 2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The loadstar(2024.01.09.), <https://theloadstar.com/damaging-port-strikes-at-dp-world-australia-terminals-extended/>(2024.01.13. 검색)

6) 아프리카



1 중국, 아프리카 철광석 개발 투자 확대³⁴⁾

- ▶ 중국은 세계 철광석 대부분을 공급하는 호주와 브라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프리카 철광석 탄광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중국에서 소비되는 철광석의 80% 이상이 호주와 브라질에서 생산, 중국은 이러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자 기니, 라이베리아, 카메룬,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함
 -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북부의 톤콜리리 철광석 광산에는 중국 광업 및 금속 회사인 ‘킹호 에너지 그룹’이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철광석 가공 공정을 건설하고 있음
 - 톤콜리리 광산에는 약 137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기니는 중국 철강업체 바오우 그룹을 비롯한 중국 국영 기업과 영국-호주의 거대 광산 기업인 리오 틴토가 기니 시만두 철광석 광산의 철광석 채굴과 철도 및 항만개발이 가능한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비준, 연간 1억 2천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가 착수됨
 - 또한 중국 기업들은 카메룬과 콩고에 걸쳐 있는 대규모 철광석 매장지를 개발하는 음발람-나베바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음
- ▶ 중국은 '23년 1월 나이지리아 라고스 외곽에 레키 심수항의 운영을 시작, 레키 심수항이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반출하기 위한 항만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South china morning post(2024.03.16.),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55471/china-planning-break-its-dependency-australia-and-brazil-iron-ore-africa-key\(2024.03.17. 검색\)](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55471/china-planning-break-its-dependency-australia-and-brazil-iron-ore-africa-key(2024.03.1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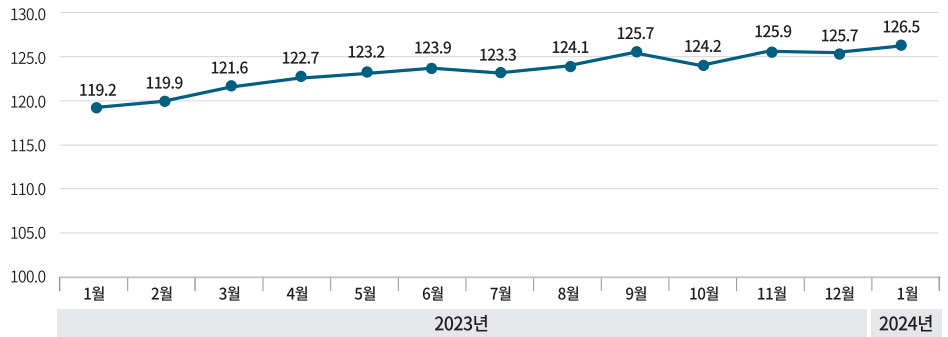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4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6.1% 증가³⁵⁾

☛ '24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한 126.5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은 춘절 영향으로 인해 전월 대비 4.2%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처리량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1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홍해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99.4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19.2	119.9	121.6	122.7	123.2	123.9	123.3	124.1	125.7	124.2	125.9	125.7	126.5	0.6	6.1
China Index	131.2	129.4	135.6	136.5	137.2	139.0	136.9	138.6	138.5	136.1	137.7	137.0	142.8	4.2	8.8
North Range Index	101.9	108.7	98.5	109.1	105.9	106.5	107.4	104.7	103.4	103.4	102.0	101.5	99.4	-2.1	-2.5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3.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3.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3.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3.15. 검색))

2 컨테이너 운송 시장 과잉 생산에 따른 어려움 예상³⁶⁾

- 머스크는 3월 14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세계 컨테이너 시장은 과잉 생산 직면에 따라 운임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라 밝힘

 - 컨테이너 운임은 팬데믹 여파로 '21~'22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크게 하락함
 - 지난해 11월 말 홍해에서의 선박 공격으로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대신해 아프리카 회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운임이 급등하였으나, 이후 가용 용량이 여전히 수요를 초과하면서 증가세가 약해짐
- 이러한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세로 주요 선사들은 올해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머스크는 이미 지난해 약 10,000명 감원 계획을 밝혔으며, 하팍로이드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노선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³⁷⁾
- 한편, 지난해 신규 컨테이너선 유입으로 업계 글로벌 용량을 9%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11%, '25년에는 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과잉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주: 3월 운임은 3월 15일까지의 평균 운임임
 자료: Clakrson Research(2024.03.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6) REUTERS(2024.03.14.),<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maersk-ceo-says-container-rates-have-fallen-unsustainable-levels-2024-03-14/>(2024.03.15. 검색)

37) REUTERS(2024.03.15.),<https://www.reuters.com/business/hapag-lloyd-posts-83-lower-net-profit-2023-cuts-dividend-by-85-2024-03-14/>(2024.03.15.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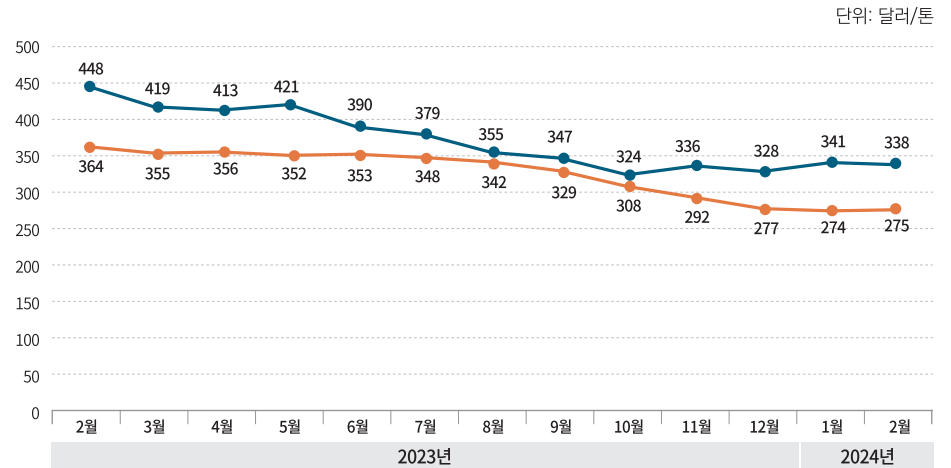


1 '24년 2월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식용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전월 대비 하락³⁸⁾

- 식용 밀(338달러/톤)과 옥수수 수입단가(267달러/톤)는 각각 전월 대비 1.0%, 8.7% 하락함
 - 반면 채유용 콩의 2월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1.8% 상승한 603달러/톤을 기록함
- 사료용 밀(275달러/톤)과 옥수수(259달러/톤), 대두박(533달러/톤)의 2월 수입단가 모두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

밀 곡종별 수입단가 추이

● 밀 제분
● 밀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24.2	
밀	제분	448	419	413	421	390	379	355	347	324	336	328	341	338
	사료용	364	355	356	352	353	348	342	329	308	292	277	274	275
옥수수	제분	371	356	345	346	339	325	300	305	289	276	276	292	267
	사료용	333	332	334	337	336	332	321	305	284	263	252	258	259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682/page/1\(2024.03.18 검색\)](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682/page/1(2024.03.18 검색))

2 전국한우협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료가격 인하 요청³⁹⁾

전국한우협회는 축산농가의 실익제고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등에 사료가격 인하를 요청함

- 농협사료는 '23년도에 3차례 사료가격을 인하했으며, 농가 사료비 절감효과가 약 1,400억 원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농협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18%로 단일 법인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농협사료의 지역조합이 생산하는 사료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농협 사료의 시장점유율은 30%를 상회함
- 이에 농협사료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가장 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한우협회에서 '23년도에 이어 사료가격 인하를 재차 요청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9) 한국농어민신문(2024.03.12.),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32> (2024.03.18. 검색)

3) 시멘트



1 2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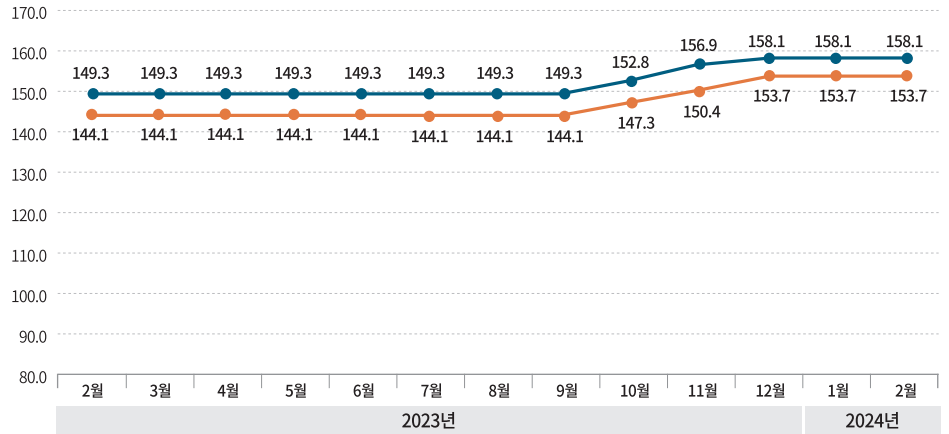
’24년 2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8.1p, 153.7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52.8	156.9	158.1	158.1	158.1	0.0	5.9	
고로슬래그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7.3	150.4	153.7	153.7	153.7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3.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4.03.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삼표시멘트, 시멘트 전용선 투입으로 작업환경 개선⁴⁰⁾

-  삼표시멘트는 하역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입한 시멘트 전용선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 삼척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표시멘트는 제주도에 일반화물선으로 시멘트를 운반해 오다 '23년 7월 제주항에 시멘트 전용선 2척을 취항함
 - 삼표시멘트는 전용선 취항 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역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 기존 시멘트 하역시간은 평균 3일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분석함
 - 또한 기상 변수가 많은 제주에서 우천이나 강풍 시에도 시멘트를 하역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작업이 가능해 안전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평가함
 - 시멘트 전용선에 밀폐형 하역장비가 설치돼 있어 비산먼지도 발생하지 않으며 전용선에 실린 시멘트가 BCT 차량으로 바로 옮겨지는 방식이라서 시멘트 하역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함

-  삼표시멘트는 전용선 운영을 위해 연간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0) 전기신문(2024.03.07.),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725\(2024.03.18. 검색\)](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725(2024.03.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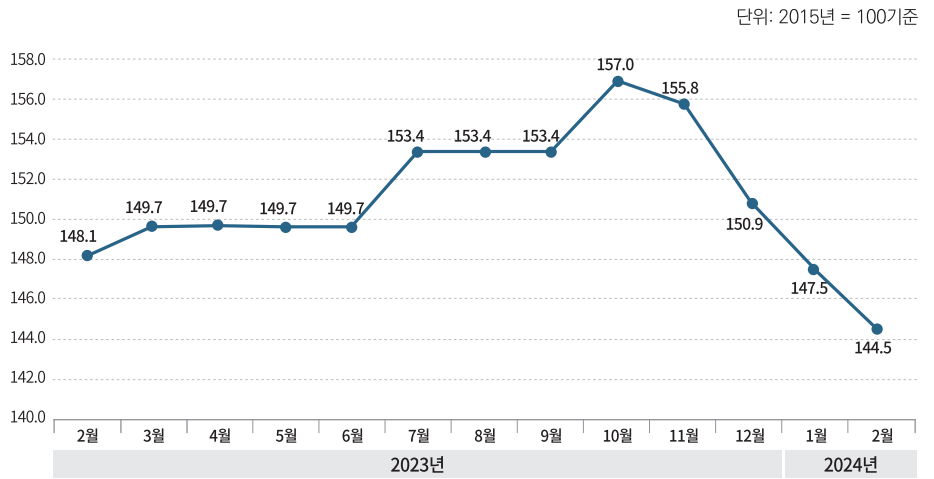
4) 모래



1 2월 생산자물가지수 144.5p 기록, '23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24년 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48.1	149.7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157.0	155.8	150.9	147.5	144.5	-2.1	-2.5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3.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4.03.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4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⁴¹⁾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24년 건설경기 부진을 예상함

 - 지난 3년 동안 건설자재 가격 35.6% 상승, 수급 문제 함께 발생해 건설사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21년 이후 건설시장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함
 - 동기간 건설물가라 할 수 있는 건설용 중간재 물가 35.6% 증가(같은 기간 생산자물가는 22.4% 증가) 등 건설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  '24년 골재 수요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억 2,700만 m³ ~ 1억 4,000만 m³으로 전망되어, '21년도(1억 3,600만 m³ 채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4년 대형 토목공사(GTX, 철도공사, 가덕도신공항 등)의 영향으로 시멘트와 골재 수요 감소폭은 타 건설자재 대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1) 한국건설신문(2024.2.7.), [http://www.cons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26\(2024.3.9 검색\)](http://www.cons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26(2024.3.9 검색))

5) 석탄



① '24년 2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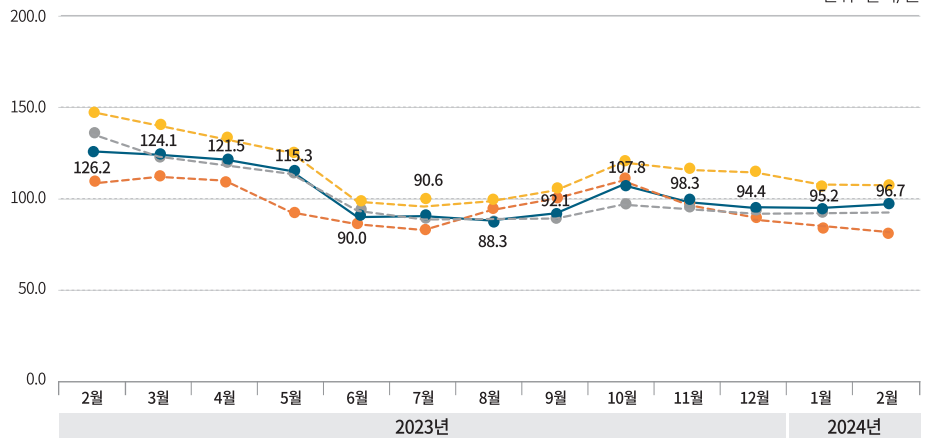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2월 평균가는 96.7달러로 전월 대비 1.6% 증가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유연탄 가격은 각각 1.6%, 0.1% 증가한 반면,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은 3.8%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96.7	1.6	-23.4	
리차드베이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81.0	-3.8	-25.4	
칼리만탄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91.9	92.6	92.7	0.1	-31.6	
중국남부	147.5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107.2	-0.9	-27.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3.24. 검색)

2 보령화력 4기 전환계획 수정⁴²⁾

- ▶ 한국중부발전은 '38년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보령화력 4기의 전환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힘
 - 전환대상은 550MW 용량의 3호기와 500MW급 4, 7, 8호기로, 3호기는 '38년 4월, 4, 7호기는 같은 해 6월, 8호기는 12월 설계 수명이 종료될 예정임
 - 중부발전은 당초 4기를 모두 LNG 복합발전으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발전설비 조사 의향서 최종서류에서 보령 3, 7, 8호기는 수소전소 복합발전 또는 LNG 열병합으로, 4호기는 양수발전으로 전환함
 - 한편, 중부발전은 '23년 말 봉화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일원에 500MW(250MW×2기)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2) The GURU(2024.03.03.),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7409\(2024.03.14.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7409(2024.03.1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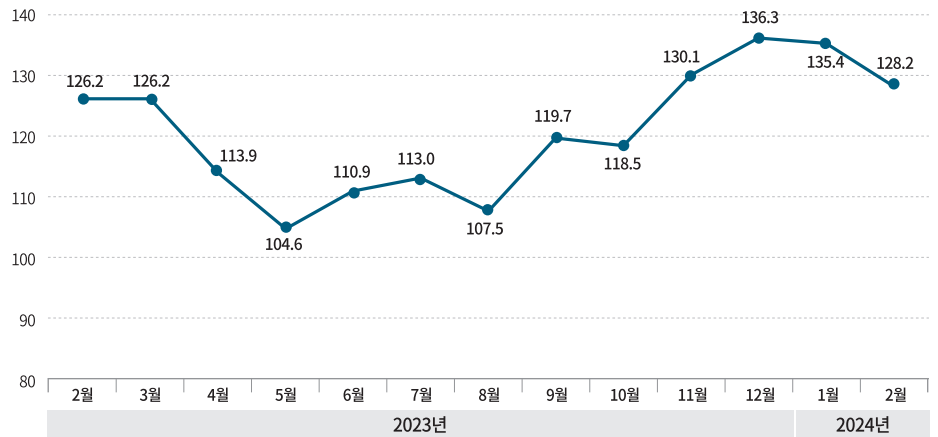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2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128.2달러 기록

- '24년 2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28.2달러로 전월 대비 5.3%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수치임
-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중국 수요 및 건설 활동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감소세로 전환됨
- '24년에 들어와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경기 둔화 및 글로벌 철강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128.2	-5.3	1.6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3.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철강 수요 둔화 및 중국 재고 급증으로 철광석 가격 하락⁴³⁾

-  지난 3월 4~5일에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 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내 수요 증가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짐
 - 또한,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내 항만의 철광석 비축량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⁴⁴⁾
 - 이러한 영향으로 3월 14일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04.35달러(Fe 62%, 북중국 CFR 현물기준)로 전월 대비 25달러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8월 15일 104.45달러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임

-  이러한 가운데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이후 중국 고로업계의 생산 재개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하방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올해 연초 톤당 4,100위안 이상을 기록한 중국 내수 열간압연강판 가격은 최근 톤당 3,800위안 후반대까지 하락함
 - 통상 중국 철강업계는 연간유지보수 작업 후 1월부터 고로 생산을 재개하나, 올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일부 업체들은 2월 중순부터 고로를 유휴상태에 두었으나 3월부터는 공장을 재가동함⁴⁵⁾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4.03.18.), <https://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528>(2024.03.18. 검색)

44) 글로벌이코노믹(2023.03.13)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4/03/202403131254186829e8b8a793f7_1(2024.03.18. 검색)

45) 이아트(2024.03.12.), <https://www.eyard.net/news/view?id=531856>(2024.03.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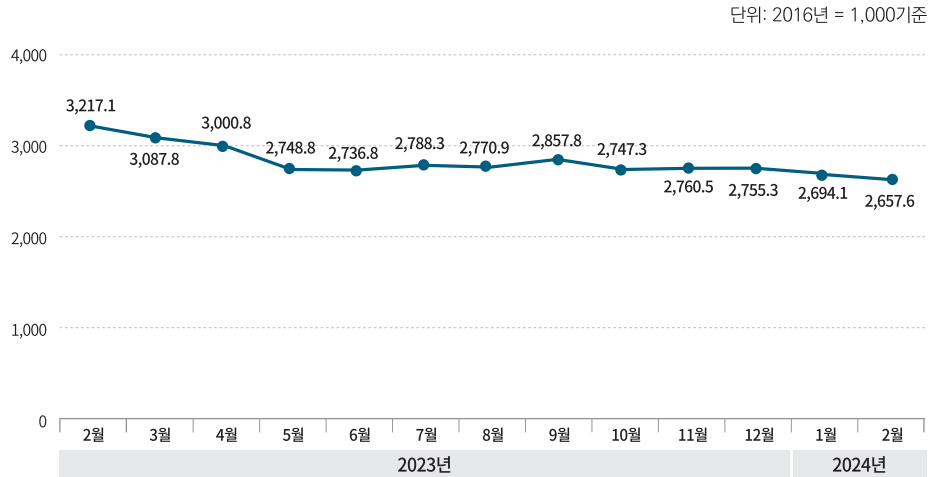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월 광물종합지수는 2,657.6p로 전월 대비 1.4% 감소

’24년 2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7.4% 하락한 2,657.6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 종합지수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657.6	-1.4	-17.4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3.24.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핵심광물파트너십(MSP) 포럼 설립⁴⁶⁾

-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및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들이 포럼을 설립해 비회원국으로도 외연을 확대하기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MSP 수석대표 회의에서 회원국들 간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힘
 - MS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22년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로, 중국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됨
 -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왔으며, 에스토니아가 최근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5개로 늘어남
 -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MSP 포럼' 설립을 통해 회원국이 아닌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도 비회원국인 중남미 자원보유국들이 참석하였으며, 리튬·흑연·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논의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6) 경향신문(2024.03.04.),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041443001#c2b\(2024.03.14. 검색\)](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041443001#c2b(2024.03.14. 검색))

8) 목재



1 '24년 1~2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27만 8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

-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의 부진으로 수입 물량이 감소함
 - 합판,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5%, 29.5% 및 24.2% 증가했으나 제재목, 성형목재 및 목재펠릿은 17.3%, 9.7% 및 16.3%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	2024년 누적 (1-2월)	2023년 누적 (1-2월)	증감률(%)
원목(천m ³)	278	338	-17.8
제재목(천m ³)	210	254	-17.3
성형목재(톤)	12,292	13,617	-9.7
합판(천m ³)	235	207	13.5
파티클보드(천m ³)	272	210	29.5
섬유판(천m ³)	41	33	24.2
목재펠릿(천톤)	518	619	-16.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03.25.),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90300&bbsId=BBM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3.25.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90300&bbsId=BBM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3.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전년 1월 대비 수입물량 8% 증가, 수입금액 20% 감소⁴⁷⁾

-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4년 1월의 수입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8% 증가, 수입금액은 20% 감소, 수입금액 감소는 수입단가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1월 수입품목 중 원목(14.5%), 합판(14.4%), 단판(62.1%), 마루판(31%), 건축목공(16.6%), MDF(65.1%), PB와 OSB(26.7%), 성형목재(8.2%) 8개 품목이 물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함
 - 반면 제재목(8.7%), 목제틀(4.2%), 목제케이스(7.2%), 목탄(16.4%), 칩(펠릿)(9.0%), 펄프(4.6%), 판지(28.1%) 7개 품목이 감소함
 - 수입물량의 증가는 지난 1년 6개월 판매부진이 지속되어 수입량을 줄여왔던 부분과 성수기인 봄철 판매를 대비하기 위해 업체들이 수입물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파악됨
-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에 의존도가 높은 목재소비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MDF, PB는 천입방미터, 천 톤

2024년 1월 기준 목재 및 목재제품 수입통계

품목명	2023년 1월		2024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단가
원목	165.0	27,392	188.9	24,620	14.5	-10.1	-21.5
제재목	137.2	41,220	125.2	32,880	-8.7	-20.2	-12.6
합판	113.0	54,050	129.2	59,645	14.4	10.4	-3.5
단판	15.5	7,469	25.1	7,650	62.1	2.4	-36.8
마루판	0.7	2,157	0.9	2,983	31.0	38.3	5.6
목제틀	0.2	786	0.2	568	-4.2	-27.7	-24.6
케이스	4.3	6,386	4.0	5,016	-7.2	-21.5	-15.3
건축목공	1.4	2,097	1.6	2,445	16.9	16.6	-0.2
MDF	13.8	4,285	22.8	6,434	65.1	50.2	-9.1
PB&OSB	103.0	15,190	130.4	18,227	26.7	20.2	-5.3
목탄	13.7	14,420	11.4	11,926	-16.4	-17.3	-1.0
성형목재	6.0	8,294	6.5	6,916	8.2	-16.6	-22.9
칩(펠릿)	480.3	86,922	437.2	48,801	-9.0	-43.9	-38.3
펄프	175.5	129,885	167.4	107,838	-4.6	-28.1	-24.6
판지류	80.2	22,124	57.7	12,604	-28.1	-43.0	-20.8

자료: 산림청 임산물수출입통계,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000&mn=NKFS_04_05_03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7) 한국목재신문(2023.03.15.),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45\(2024.03.19. 검색\)](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145(2024.03.19.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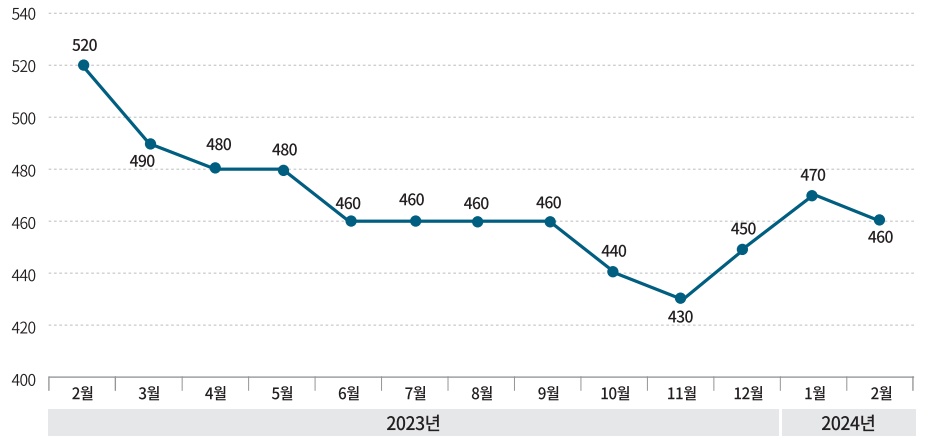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소폭 하락

국내 2월 생철 가격은 톤당 46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수준임

- 지난 2개월 동안 톤당 2만 원씩 증가한 고철 가격은 '24년 2월 다시 소폭 감소함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520	490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60	-2.1	-11.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3.25.),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3.25. 검색)

조성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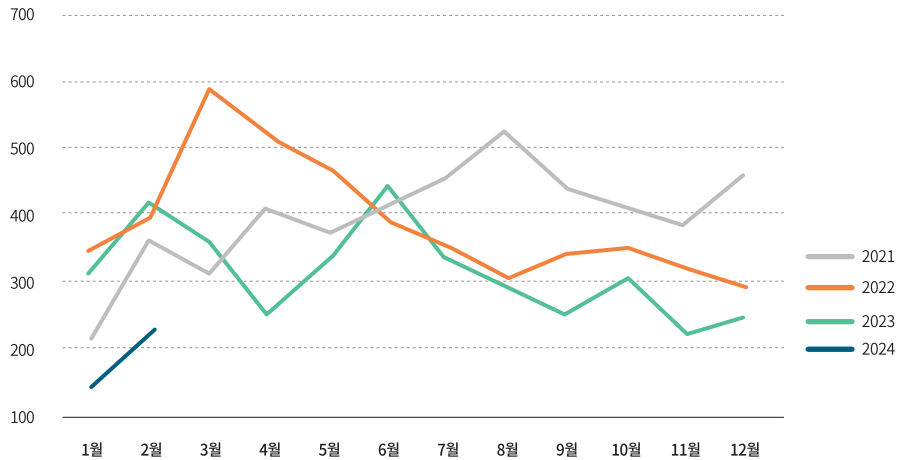
051-797-4690, shcho@kmi.re.kr

2 2월 고철 수입량 8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⁴⁸⁾

2월 국내 고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5.9% 감소한 22만 7천 톤을 기록하여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국내 고철 수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와 지속된 시황 악화로 지난해 6월 정점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올해 1월 사상 최저치(14만 5천 톤)를 기록함
- 1~2월 국가별 수입은 일본산이 약 3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감소했고, 러시아산 2만 1천 톤과 미국산 1만 6천 톤 역시 각각 51.8%, 7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고철 월별 수입



자료: 철강금속신문,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3/13/PS010313010100301B0001.pdf>(2024.03.18.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8) 철강금속신문(2024.03.13.),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3/13/PS010313010100301B0001.pdf>(2024.03.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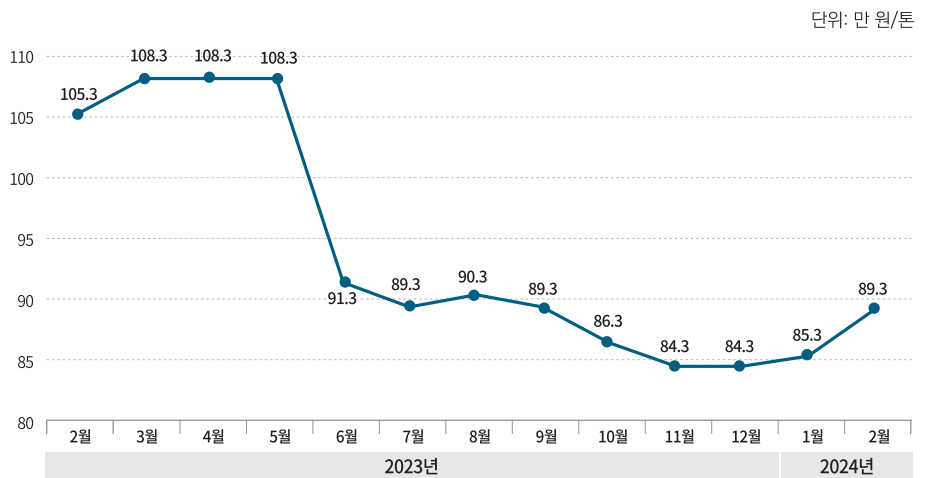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전월 대비 반등

- 2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4.7% 증가한 89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2% 하락한 수준임
- '22년 4월에 톤당 130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을 나타냈던 열연코일 가격은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하락, 지속된 철강 전방 수요 침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4년 2월 전월 대비 톤당 4만 원 증가하며 반등세가 나타남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84.3	85.3	89.3	4.7	-15.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3.25.),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3.25.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3.25.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중국산 후판 수입 증가 전망⁴⁹⁾

- 최근 글로벌 원료가격 하락과 중국 내수 부진으로, 중국 철강업체가 제품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 지난해 연말 중국산 후판의 수입 가격은 톤당 710달러를 웃돌았으나,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월 말 기준 톤당 690달러를 기록함
 - 철광석 가격이 연초 대비 30달러 이상 하락한 톤당 110달러를 기록하는 등 3월 이후 철강원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또한 중국 내수 부족으로 중국 내수 후판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후판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최근 조선업계 업황 개선으로 국내 조선용 후판 수요가 급증했으나 시황 개선 수혜를 중국산 후판이 입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중국 철강업체가 후판 소비량이 많은 조선사를 대상으로 판매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는 등 중국산 후판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9) 철강금속신문(2024.03.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3/18/PS010318010100601B0001.pdf>(2024.03.18. 검색)

11) 자동차



1 '24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수출·생산 모두 전월 대비 감소, 수출·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⁵⁰⁾

1월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은 내수는 감소했으나, 수출과 생산은 증가함

- 내수는 경기 부진에도 전년 대비 영업일수의 증가와 신차효과로 국산차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차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116,464대(국산차 2.8% 증가한 103,369대, 수입차 18.8% 감소한 13,095대)를 기록함
- 수출은 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 내 국산 SUV·친환경차 판매 호조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한 243,211대를 기록함
- 생산은 전기차 라인조정을 위한 현대 아산공장 가동중단('23.12.30~'24.2.13)에도 공장 가동일수 및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358,464대를 기록함

단위: 대, 백만\$, %

'24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1월	1~1월	12월	1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16,640	116,640	143,245	116,464	116,464	-18.7	-0.2	-0.2
(국산차)	1,451,663	100,515	100,515	114,984	103,369	103,369	-10.1	2.8	2.8
(수입차)	287,586	16,125	16,125	28,261	13,095	13,095	-53.7	-18.8	-18.8
수출	2,766,271	198,512	198,512	247,206	243,211	243,211	-1.6	22.5	22.5
(완성차 수출액)	70,870	4,981	4,981	6,389	6,212	6,212	-2.8	24.7	24.7
(부품 수출액)	22,963	1,726	1,726	1,773	1,912	1,912	7.9	10.8	10.8
생산	4,243,597	306,736	306,736	367,631	358,464	358,464	-2.5	16.9	16.9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3.16.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3.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3.16.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10&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3.16. 검색))

2 중국 전기차,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해외 생산기지 건설 추진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정책 대응 및 수출을 위한 해법으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⁵¹⁾

- 미국·유럽 등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음
- 충청북도는 중국 비야디(BYD) 본사를 찾아 공장부지를 소개했으며,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사인 베이징자동차도 지난 3월 6일 경기 고양시와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그 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합작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IRA 등 미국의 중국 배제 정책 우회를 위한 전략임
-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하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입 규제도 피할 수 있어 BYD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북부에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자동차의 MG 브랜드와 체리자동차도 멕시코 내 신규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임
- 다만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동차는 제조 지역과 상관없이 관세를 27.5%에서 125%로 올리는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음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는 충청북도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⁵²⁾

- 지난해부터 충청북도와 BYD는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전기차 신공장 설립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기차 공장 건립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BYD 임원진은 공장 설립이 유력한 충북 내 주요 지역을 방문함
- 현재 전기차 공장 후보지로는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후보지는 BYD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1톤 트럭 T4K가 들어오는 평택항과 100km 내에 위치하고 충북 내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 업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인접해 전기차 생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요충지역임
- BYD는 충북 신공장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기차의 반조립(CKD), 부분조립(SKD) 생산을 고려하고 있음
-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BYD는 한국을 전략 생산 거점으로 전기 승용차 생산과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북미나 유럽 등으로 수출할 전망임

51) 뉴스1(2024.03.08.), [https://www.news1.kr/articles/5343358\(2024.03.16. 검색\)](https://www.news1.kr/articles/5343358(2024.03.16. 검색))

52) 전자신문(2024.03.04.), [https://www.etnews.com/20240303000098\(2024.03.16. 검색\)](https://www.etnews.com/20240303000098(2024.03.16. 검색))

* CKD(Complete Knock-Down)는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조립, 도장해 완성차로 생산하는 방식이며, SKD(Semi Knock-Down)는 차체 조립과 도장까지 마친 상태에서 수입해 현지 공장에서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임

- BYD는 지난해 헝가리와 브라질에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최근 멕시코, 이탈리아 등과도 신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 북경자동차, 고양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전기차 생산기지 조성 추진⁵³⁾

- 고양트레시는 3월 6일 북경자동차그룹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자 사업운영 총괄인 지오엠에스디(GOMSD)와 북경자동차 생산기지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북경자동차그룹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약 4조 원을 투자해 200만㎡ 규모의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 계획 중인 생산기지의 생산량은 연간 20만 대 이상이고 90%를 수출할 계획이며, R&D 연구원 운영, 인재양성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재직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을 시와 협력해 나갈 방침임

🔗 BYD,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건설에 8천억 원 투자 추진⁵⁴⁾⁵⁵⁾

- BYD는 멕시코에서 건설 비용만 6억 달러(7,903억 원)가 투입되는 전기차 공장 건설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 있음
- 블룸버그는 BYD가 멕시코 할리스코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보도했으며, 전기차 공장 건설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은 브라질 전기차 공장에 투입된 비용과 비슷한 6억 달러(7,903억 원)로 추산됨
- 테슬라는 약 100억 달러(13조 원)를 투자해 멕시코 북부 누에보 레온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BYD뿐만 아니라 체리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이 공장 설립을 계획하는 등 멕시코는 최근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한편, 미국 제조업계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권력과 자금력을 지원받아 매우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들이 멕시코를 거쳐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수입되고 있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부품은 무역 특혜를 받게 되는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경기일보(2024.03.06.),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306580205>(2024.03.16. 검색)

54) ZDNET KOREA(2024.03.11.), <https://zdnet.co.kr/view/?no=20240311103554>(2024.03.16. 검색)

55) ZDNET KOREA(2024.02.25.), <https://zdnet.co.kr/view/?no=20240225095834>(2024.03.16.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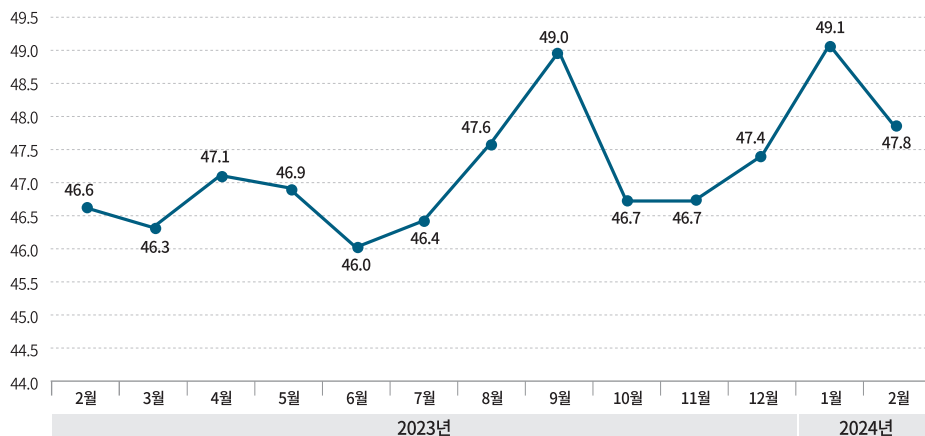
1

'24년 2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는⁵⁶⁾ 전월 대비 1.3p 하락한 47.8p를 기록⁵⁷⁾

미국의 2월 PMI 지수는 47.8p로 전월 대비 1.3p 하락하였으며, 신규 주문지수는 49.2p로 1월 52.5p보다 3.3p 하락함

- 1월 50.4p로 확장구간에 들어섰던 생산지수도 2.0p 낮아진 48.4p를 기록하였으며 고용지수 또한 1월 47.1p보다 1.2p 낮은 45.9p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임

미국 PMI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2023.03.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6)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증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7) Trading Economics (2023.03.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3.18.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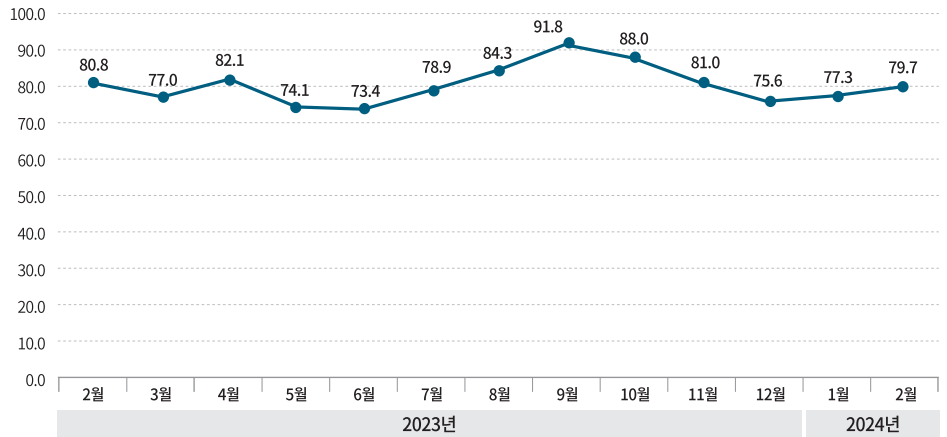
13) 유류



① '24년 2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증가

- 📌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24년 1월에 반등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는 배럴당 평균 79.7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이-팔 전쟁과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갈등의 확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유가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유가는 유동적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2.1	78.5	83.4	75.0	75.0	80.5	86.5	93.3	89.8	83.6	77.3	78.9	80.9	2.6	-1.5	
Brent	83.5	79.2	83.4	75.7	75.0	80.2	85.1	92.6	88.7	82.0	77.3	79.2	81.7	3.2	-2.2	
WTI	76.9	73.4	79.4	71.6	70.3	76.0	81.3	89.4	85.5	77.4	72.1	73.9	76.6	3.7	-0.3	
평균	80.8	77.0	82.1	74.1	73.4	78.9	84.3	91.8	88.0	81.0	75.6	77.3	79.7	3.2	-1.4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3.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3.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 추진 중단, 카타르의 LNG 생산 확대와 대조⁵⁸⁾

❖ 미국은 LNG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함

- 미국의 수출 허가 발급 중단은 신규 LNG 프로젝트가 자국의 경제·기후·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전문가들은 에너지부가 기준 마련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발급 중단이 최소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에너지부의 결정이 미국 LNG 생산 및 수출에 단기간 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13개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 일정이 순차적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에 미칠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이겠으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LNG 수출은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LNG 수출 증가 시점 연기로 결국 세계 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화 시점도 미루어질 전망이다

❖ 반면, 카타르는 현재 진행 중인 LNG 생산 확대 계획에 이어 추가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가스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나서고 있음

- QatarEnergy는 자국 해상에 위치한 대규모 가스전(North Field)에서 240조 입방피트의 추가 매장량을 확보했으며, 이를 개발하여 LNG 생산능력을 현재(7,700만 톤/연)보다 85% 확대한 1억 4,200만 톤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카타르는 이미 LNG 생산능력을 '27년까지 1억 2,600만 톤/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추가 매장량 확보를 통해 생산능력 확대 목표를 상향 조정함
- 카타르의 LNG 생산 확대 계획은 엑슨모빌(ExxonMobil) 등 7개의 세계적인 석유·가스 생산기업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이번 생산능력 확장 계획에 따라 기존 기업 또는 신규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수출 허가 발급 중단으로 세계 가스시장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카타르의 생산 확대 계획으로 공급과잉 기조는 유지될 전망

- LNG 생산 증가로 '2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가스시장에서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LNG 생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카타르가 세계 가스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미국 LNG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도입계약 체결 시 카타르 LNG와 달리 목적지 제한조항*이 없고 지정학적 긴장**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었으나, 미국 LNG가 규제리스크에 처하게 되면서 규제가 없는 카타르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목적지 제한조항 : LNG 수입자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수입물량을 수입지역 외의 지역에서 임의 처분이 불가함

- ** 카타르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한데,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함
- 또한 카타르 LNG의 원료가스 비용은 미국보다 매우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요지역 가스 가격 하락 시 미국은 LNG 생산을 중단하나 카타르는 생산 중단 가능성이 낮아 도입 안정성 측면에서 카타르의 LNG가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미국과 캐나다의 석유 공급, '24년에도 지속 전망⁵⁹⁾

- 📌 **주요 전망기관들은 '24년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은 전년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극심한 한파로 인한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콜로라도(Colorado)주, 와이오밍(Wyoming)주, 텍사스(Texas)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1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70만 b/d 감소한 1,260만 b/d를 기록했으나, 2월 1주 원유 생산량은 1,330만 b/d를 기록하는 등 한파 이전 생산량으로 회복됨
 - 석유 생산량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석유·가스 리그(rig) 수는 '23년 4월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리그당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음
- 📌 **'23년 캐나다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7만 b/d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583만 b/d를 기록하였으며, 여러 전망기관들은 올해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IEA는 TMX(Trans Mountain Expansion Project) 송유관이 2분기에 운영되기 시작되면, 수출량 증대로 인한 상류부문 사업 확장과 병목현상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 TMX는 수송능력 30만 b/d의 기존 Trans Mountain 송유관을 확장하여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 에드먼턴(Edmonton)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 버나비(Burnaby)항을 잇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공사는 98% 이상 완료됨
 - 다만, 전망기관들은 이를 통해 캐나다 원유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TMX 개통 이후에도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캐나다산 원유 공급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3.0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3.1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3.16. 검색))

4 러·우 전쟁 2년,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 크게 감소⁶⁰⁾

현재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대비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감소함

- 러시아산 가스 유럽 수입량(LNG 포함)은 '21년 1,550억 m³ 수준이었으나, '22년 800억 m³, '23년 430억 m³ 수준으로 감소함
-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소수의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계속 수입 중임
-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대체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노르웨이,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로부터 파이프라인 공급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다만,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최근 러시아산 가스 수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EU는 러시아의 '가스를 통한 유럽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요인은 공급 감소보다는 수요 감소에 있는 것으로 평가함
- EU는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의무 저장도입, 수요 15% 감축 등을 성공 요인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따뜻한 겨울 날씨 등 수요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는 다시 수요 증가요인이 될 수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남아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 가스가 다시 예전처럼 유럽으로 공급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음

-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 감소분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수출하면서 만회하고자 노력 중이나, 예전 유럽 수출량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스공급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 중인 유럽 가스 수요가 향후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유럽이 러시아 가스와 단절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3.07.),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3.16.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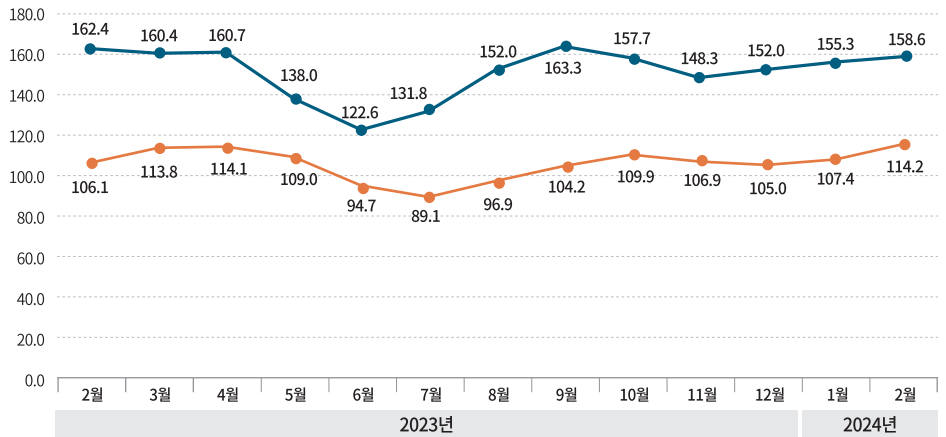
1 나프타·에틸렌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동반 상승

■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3년 12월과 '24년 1월 반등하여 2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는 '24년 2월 전월 대비 2.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4% 하락한 158.6p를 기록함
- 나프타 크래킹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은 '24년 2월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한 114.2p를 기록함
- 수요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증가, 홍해 리스크 등의 공급망 문제로 유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 추이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63.3	157.7	148.3	152.3	155.3	158.6	2.1	-2.4	
에틸렌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104.2	109.9	106.9	105.0	107.4	114.2	6.3	7.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3.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3.25.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롯데케미칼, 공정에 머신러닝·딥러닝 접목⁶¹⁾⁶²⁾

롯데케미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연구 강화를 위해 기초소재사업과 첨단 소재사업 특성에 맞춘 별도의 AI조직을 신설함

- 기초소재사업은 축적된 R&D 지식과 AI 융합을 통한 AI 연계 촉매,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대전 종합기술원에 AI 업무를 통한 ‘AI솔루션팀’을 신설하여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을 활용한 제품 물성 개선, 촉매 특성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 반응기 설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첨단소재사업은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식별하고 효율성 개선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AI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인 ‘AI 추진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예측 설비유지보수, 최적 소재조합 시뮬레이션 등 현장에 필요한 AI기술을 도입해 스페셜티 소재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LG화학, 화학사업 분할 추진⁶³⁾⁶⁴⁾

LG화학은 납사분해시설(NCC)을 포함한 석유화학 사업을 분리한 투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LG화학은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NCC 공장의 매각을 검토해 왔으나 적절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게 되자 매각 대신 화학사업부 분할 및 유동화로 계획을 선회하였으며, 이를 통해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로부터 연내 약 3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할 계획임
- LG화학은 오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매각 검토 중이던 여수 NCC 2공장을 포함한 화학사업 전반의 물적분할을 추진하며, 사업을 100% 자회사로 분할한 뒤 연내 KPC에 소수지분(약 49%)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합작투자(JV: Joint Venture)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LG화학이 지난 '18년부터 3년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 여수 NCC 2공장은 에틸렌 기준 연산 8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이며, 완공 3년이 지나지 않아 장부가만 2조 원이 넘어가는 자산임
- LG화학은 이번 JV를 통해 화학 사업에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약 3조 원 안팎 현금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1) EBN 산업경제(2024.02.22.), <https://chem.ebn.co.kr/news/view/1613611>(2024.03.16. 검색)

62)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2.22.),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943 (2024.03.16. 검색)

63) Invest Chosun(2024.03.06.),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4030580183>(2024.03.16. 검색)

64)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3.07.),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964 (2024.03.16.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향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향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향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향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3월 28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향만연구본부 향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